

[보도자료]

이 자료는 2012년 10월 12일(금)에 배포되었습니다.

여성변호사의 근로조건 개선방안 마련 시급하다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공동으로
여성변호사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배 포 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배포 날짜 : 2012년 10월 12일(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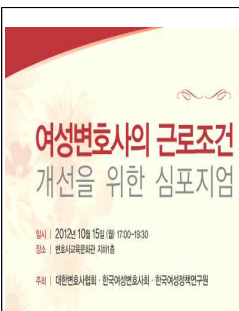
보도 날짜 : 2012년 10월 12일(금)

언론담당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홍보담당 황 애 리

(연락처: 02-3156-7296, 이메일: aeri2008@kwdimail.re.kr)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신영무),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삼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최금숙)은 오는 10월 15일(월) 오후 5시에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에서 “여성변호사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을 공동으로 개최한다.

심포지엄 개요

 <p>여성변호사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p> <p>일시 2012년 10월 15일 (월) 17:00-19:30 장소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주최 대한변호사협회 · 한국여성변호사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input type="checkbox"/> 주제 여성변호사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input type="checkbox"/> 일시 2012년 10월 15일(월) 17:00 - 19:30<input type="checkbox"/> 장소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input type="checkbox"/> 주최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신영무),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삼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최금숙)은 오는 10월 15일(월) 오후 5시에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에서 “여성변호사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을 공동으로 개최한다.

- 최금숙 원장은 “인권 보호에 앞장서는 여성변호사들이 정작 자신의 권리 주장에는 취약할 수 있다.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향후 여성변호사의 근로조건 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행사의 개최의의를 밝혔다.

<행사 개요>

- 2012년 현재 여성변호사 수는 전체 변호사의 15.9%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로스쿨 졸업생 중 거의 절반 가까이 여성이 배출되는 등 여성변호사들의 사회진출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여성변호사들이 실제로 우리 사회의 남성 중심적인 고용환경과 성차별에서 과연 자유로운지에 대해서는 점검이 필요한 실정이다.

- 이에 이번 포럼에서는 진행 중인 연구를 바탕으로 여성 변호사의 고용상 성차별과 모성보호제도의 이용실태를 점검하고, 남성중심 고용환경 개선 및 일·가정양립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마련되었다.

-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윤석희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여성 변호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가 좌장을 맡고, 송효진 한국 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여성변호사의 고용상 성차별과 남성 중심 고용환경의 개선방안”을 주제로, 고미진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집행위원)가 “여성변호사의 모성 보호제도 이용실태 및 일·가정양립을 위한 고용환경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 김현 변호사(전 서울지방법변호사회 회장), 김태선 변호사(현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영희 변호사(대한 변호사협회 대변인),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붙임 1. 발표 주요내용

2. 프로그램

붙임 1. 발표 주요내용

여성변호사의 고용상 성차별과 남성중심 고용환경의 개선방안

송효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 2012년 현재 여성변호사 수는 2022명에 이르러 전체 변호사의 15.9%를 차지하고 있으며, 로스쿨제도의 도입으로 여성변호사의 증가는 향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 이러한 사회적 흐름 속에서 여성변호사들이 우리 사회의 남성 중심적인 고용 환경과 성차별에서 과연 자유로운지 그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자 함

☐ 조사개요

☐ 설문조사

- 일시 : 2012년 4월
- 조사주제 : 여성변호사의 채용, 근무조건과 출산, 양육에 관한 실태조사
- 조사대상 : 여성변호사 360명
- 대한변호사협회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

☐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 조사일시 : 2012년 7월
- 조사주제 : 근로환경, 일·가정 양립 실태, 출산 및 육아제도 및 정책에 대한 관심정도, 미래 일·가정 양립에 대한 미혼여성변호사들의 자세 등
- 조사대상 : 기혼여성변호사(15명)와 미혼여성변호사(5명)를 대상
- 대한변호사협회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공동 조사

- ☐ 본 발표문에서는 여성 변호사들의 고용 및 승진·진급, 업무 등 근로환경에서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 조사를 통하여 파악하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함
- ☐ 설문조사 결과 여성변호사들은 '취업'에 있어서 87.7%가 남성보다 불리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파트너진급이나 기업 내 승진에 있어서 남성변호사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77.5%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채용과 승진에 있어 차별 경향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급여’ 나 ‘해외연수나 교육프로그램 및 의뢰인과의 회의’ 시 남성변호사에게 우선적으로 기회를 부여하는가에 대한 응답에서는 채용이나 승진에 비해서는 차별 수준을 크게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면접조사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됨. 여성 변호사들은 입직이 가장 어렵고, 로펌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진급하거나 조직 내 승진에서 여성의 기여가 제대로 인정받는 경우가 드물다고 답함. 결혼, 임신·출산, 양육은 여성의 기회를 제한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지만, 의뢰인의 편견 때문에 무조건 남성을 선호하는 경우도 많이 경험하고 있었음
- 로펌에서는 의뢰인과의 관계, 수입 능력이 가장 우선적인 평가 기준이라는 점이 결과적으로 여성의 상향 이동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지적됨
- 이에 여성 변호사들의 경력 발전을 위한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함
 - ① 여성변호사에 대한 성차별적 편견 자각 및 남성 중심적인 근로환경 개선
 - ② 법적 기준에 맞는 휴일·휴가제도 정착 및 유연근무제 도입
 - ③ 근로계약에 기초한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고용체계 확립
 - ④ 여성변호사들이 진출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 개척
 - ⑤ 여성변호사의 고용현황을 알 수 있는 정확한 성인지적 통계 파악
 - ⑥ 여성변호사들 간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 및 멘토링 확대

여성변호사의 모성보호제도 이용실태 및 일·가정양립을 위한 고용환경 개선방안

고미진 변호사

- ☐ 여성변호사들은 “변호사라는 직업이 자신의 임신, 출산에 어려움을 준다고 인식한다”에 82.5%, “출산이 변호사로서의 취업이나 진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한다”에 75.3%가 그렇다고 응답함
- ☐ 실제 출산 경험자 중 “직업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임신 합병증, 불임, 유산 및 조산의 위험을 겪어본 경험이 있냐”는 질문에 그러하다는 응답이 28%에 이르러 임신 과정에서 변호사들이 임신 자체의 신체적, 생리적 문제 이외 직업적 스트레스와 과도한 업무가 여성변호사들의 출산 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 구체적으로는 출산으로 인해 변호사 활동이 어려운 점은 주로 직장 내 근무 시간 조율 29%, 시간적 여유 23%, 업무의 효율성 저하 12%, 진급문제 10%, 동료 및 상사와의 갈등 9%, 관계지속성 문제, 다른 변호사에게 업무가 전가 되는 부담감, 출산휴가제도 미비 문제 등으로 응답함
- ☐ 향후 출산계획을 묻는 질문에서 28%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자녀를 낳을 계획이 없다고 답하였고 그 이유로 직업적 특성상 육아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의 부족 25%, 직업으로 인해 오는 스트레스로 인해 12%, 대리양육자 조달문제 25%, 자녀양육 및 교육비에 대한 부담 16%, 노산의 위험성 9%, 개인적 자아실현 5%, 해고의 위험성과 재취업의 어려움 등으로 응답함
- ☐ 일·가정양립을 위해 새로운 법제도의 신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탄력근로제, 육아 휴직제, 근로시간 단축 등 대체적으로 잘 완비된 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함
- ☐ 또한 향후 여성변호사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여성변호사지원프로그램을 통한 유연근무제, 출산휴가 및 산전 후 급여준수, 로펌과의 간담회, 원로 여성법조인의 강연 등으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대안을 구축해야 함

붙임 2. 프로그램

<프로그램>

프로그램

16:50 ~ 17:00	등 록		
17:00 ~ 17:10	개 회 식		
	사 회	왕미양	변호사(대한변협 여성변호사특별위 간사)
	환 영 사	신영무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삼화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최금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좌 장	윤석희	변호사(대한변협 여성변호사특별위 부위원장)
17:10 ~ 18:00	제1주제		
		여성변호사의 고용상 성차별과 남성중심 고용환경의 개선방안	
		발표 송효진 박사(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제2주제		
		여성변호사의 모성보호제도 이용실태 및 일·가정양립을 위한 고용환경 개선방안	
		발표 : 고미진 변호사(대한변협 여성변호사특별위 집행위원)	
18:00 ~ 18:20	휴식 및 다과회		
18:20 ~ 19:00	지정 토론 (가나다순)		
	토 론 자	김 현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김태선	변호사(현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영희	변호사(대한변협 대변인)
		박선영	박사(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9:00 ~ 19:20	종합 토론		
19:20 ~ 19:30	폐 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국책연구기관이다. 현재 한국의 여성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여성정책 및 여성 능력 개발, 여성 연구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복지 증진과 가족 그리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법령, 정부정책 등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분석을 하고 정부예산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을 하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1983년 개원한 여성정책 전문연구기관으로서 2007년 5월 한국여성개발원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으로 기관명을 바꾸고,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여성정책 Think-Tank 역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